

## 제주지역 공연장 접근 형평성 평가와 입지선정 방향 연구

고혜영<sup>1</sup>, 고태호<sup>2</sup>, 황경수<sup>3\*</sup>

<sup>1</sup>제주대학교 행정학과, <sup>2</sup>제주연구원 연구위원, <sup>3</sup>제주대학교 행정학과

###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Equality and the Direction of Location Selection for the Concert Hall in Jeju

Hye-Young Ko<sup>1</sup>, Tae-Ho Ko<sup>2</sup>, Kyung-Soo Hwang<sup>3\*</sup>

<sup>1</sup>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2</sup>Jeju Research Institute Reserch Fellow

<sup>3</sup>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요약** 제주도민은 문화예술 활동의 이용 내용에는 만족 비율이 높은 반면, 이용 환경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연장 접근성이 낮아 문화소외지역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도 내의 공연장 중 공공기관이면서 문화예술회관,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인 경우를 선정하였으며 9개의 공연장이 이에 부합하였다. 이후 GIS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선정된 공연장의 입지 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공연장 접근성이 취약한 제주 서부지역, 동부지역의 입지선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입지선정방향은 이론, 선행연구,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거주밀집지역의 제외, 접근성 취약지역의 우선, 접근성 취약지역 내 접근성 양호지점,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권역과의 원거리 지점, 자연경관 친화, 대중교통접근성을 선정하였다. 제안한 입지 방향에 맞는 2020년 현재 공연장 건립가능 지역으로 성산일출봉, 새별오름, 표선해수욕장, 송악산 등 4곳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입지선정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제주를 '문화의 섬'으로 만드는 문화마케팅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Abstract** Jeju has many out-of-town cultural areas owing to its low accessibility to concert halls. Based on data from Jeju in 2019, this study selected possible sites for concert halls and examined the location status of existing concert halls in Jeju by utilizing GIS analysis. As a result, directions on location selection are proposed for the western and eastern parts of Jeju, where accessibility to concert halls is relatively difficult. Considering the theory, prior research, an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Jeju, the directions for location selection exclude residential areas and areas with little accessibility. They also list good points for accessibility within areas that have little of it, that are distant from administrative dong areas in Jeju-si and Seogwipo-si, that have friendly natural scenery, and that already have accessible public transportation. Accordingly, four places were proposed as possible areas for construction of a concert hall in 2020.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cultural marketing that makes the Jeju area a Cultural Island.

**Keywords** : Concert Hall, Evaluation, Equality, Direction of Location, Jeju

본 논문은 2020 학년도 제주대학교 삼정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Kyung-Soo Hwang(Jeju National Univ.)

email: kshwang@jejunu.ac.kr

Received November 20, 2020

Accepted January 8, 2021

Revised December 21, 2020

Published January 31, 2021

## 1. 서론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면서 문화와 관련해서 국민 개개인의 문화역량과 사회전반의 문화자본 향상,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와 지원정책의 개선 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1]. 지역의 문화시설은 지역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문화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에 지역의 문화시설은 이용자의 문화복지수요, 접근성, 문화형평성, 문화정보 및 교육 서비스 등과의 연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2]

2017년 실시한 ‘제주문화지표조사’를 살펴보면 문화예술 활동 이용 내용의 만족 비율이 프로그램 재미와 흥미 59.0%, 프로그램 대중성 53.6%, 프로그램 내용 및 수준 47.1% 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반면, 이용환경의 만족 비율이 장소접근성 11.6%, 편의 및 휴게시설의 쾌적성 9.7%, 주차시설의 편의성 9.6%로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 이처럼 문화예술환경 이용접근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공연장의 추가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예술단체들이 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 대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문화소의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시설의 접근성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시설 중 공연장의 입지 분포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주지역만의 공연장 입지 방향성을 제안하고 공연장 접근 취약지역에 이에 알맞은 장소를 제안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문화시설의 개념 및 유형

#### 2.1.1 문화시설의 개념

임학순은[2] 문화시설을 ‘문화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 및 공간’이라고 정의하며, 문화융성위원회에서는 ‘문화라는 행위가 발생하는 곳’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문화시설은 ‘문화를 누리고 발달시키는 기능을 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2.1.2 문화시설의 유형

문화시설은 기능, 소유·관리·운영 주체별, 법체계 등에 따라 분류해 볼 수 있다.

기능에 따라 구분하면 전시시설, 공연시설, 도서시설, 문화보급시설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소유·관리·운영 주체에 따라서는 국립, 공립, 민간(사립)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는 문화시설의 범위를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종합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지역문화 활동시설, 문화 보급·전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 2.1.3 공연장의 개념 및 상세분류

「공연법」상에 ‘공연’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로 ‘공연장’은 이러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

Table 1. Detailed classification of Cultural Facilities

Division		Definition
Concert Hall	Arts Center	a large-scale performance hall with more than 1,000 seats, including the city and provincial general cultural arts centers
	Theater	Medium-sized performance halls with less than 300 seats, including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cultural arts centers
	Little Theater	a small concert hall with less than 300 seats
Movie Theater		Movie theaters under Article 36 (1)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Movies and Videos’
		Non-standing screenings under the proviso of subparagraph 10 of Article 2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Movies and Videos’
Outdoor Stage		Outdoor facilities for performing, playing, dancing, etc. Other than performance halls under the ‘Performance Act’
Culture & Art Center		A comprehensive cultural facility with complex functions such as performances, exhibitions, conferences, cultural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vision

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는 ‘공연시설’을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연장은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으로 다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종합시설 중 문화예술회관을 공연장과 분리하고 있다. 공연장 및 문예회관의 특징은 <표 1>의 내용과 같다.

## 2.2 접근성 이론에 대한 논의

### 2.2.1 접근성의 개념

접근성의 개념은 적용분야에 따라 다양함으로 명확한 정의가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서비스에 대해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시설 혹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이현주: [4] 재인용)’로 정의할 수 있다. 더불어 토지이용과 도시계획, 교통계획, 입지 이론 등 여러 분야에 적용되며, 특히 도시계획에서의 접근성은 도시의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얼마나 많이 이용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도시시설의 입지 기준으로 공간적 형평성과 효율성은 접근성에 의해 산정될 수 있다[5]. 또한 ‘서비스에 대해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하여 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접근성 개념화하고 있다[3]. Levesque et al([5], 재인용)은 접근성의 하위 차원으로 ‘접근가능성(approachability), 수용가능성(acceptability), 적절성(appropriateness), 이용가능성(availability), 비용적절성(affordability)’의 다섯 요소를 제안하고 있다.

### 2.2.2 문화접근성의 개념

사전적으로 접근성은 ‘특정 지역이나 시설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문화접근성은 ‘문화복지, 문화향유, 문화서비스, 문화시설로의 접근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최상미 외[5]에서는 ‘거리, 비용과 같은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정보, 경험 등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갖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현택수[6]는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의 하나로 사회취약계층의 문화 접근성 향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의 개입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 2.2.3 공간적 형평성과 접근성

‘삶의 질’과 관련하여 문화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시설의 위치와 이용은 수요자에게 있어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시설의 분포, 물리적 접근성의 정도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문화격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지역 사람들이 서비스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이용 가능성의 평등’이라는 의미의 ‘공간적 형평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이 문화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접근성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7].

## 2.3 선행연구 분석

공공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한 논문은 다양하게 있으며, 문화시설, 공연장, 지역적 특색 등을 고려한 입지선정에 대한 논문은 많지 않다.

김태일[8]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집중되어있는 문화시설을 리(里)단위의 지역분산형으로 소규모 다기능 복합 문화거점시설을 확충하고 이들을 네트워크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박재홍·김철홍[9]은 화성시와 용인시를 대상으로 복합공공문화시설의 입지결정요인을 접근성, 문화 및 관련시설과의 연계성, 쾌적성, 역사성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접근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고 있다. 경기도내 과천, 안양, 의왕, 군포시에 대해 문화시설의 접근성을 Urban Network Analysis(UNA)를 이용하여 박태선·이미영[10]은 분석하였다. 이에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한 문화시설 입지선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최상미·채성현[11]은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문화접근성이 삶에 대한 만족감을 매개로 우울감에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공공도서관 접근성을 분석하여 입지의 비효율성을 확인한 김현중·이종길·여관현[12]은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입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포시와 성남시의 공공도서관의 입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임수진·김찬호[13]는 지역 주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기반시설 입지 선정은 이용자의 접근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며 접근 형평성을 높여 이용평의가 최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공시설, 공공기반시설의 경우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공연장과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연구를 함으로써 선행연구와는 다른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3. 연구 분석의 방법 및 분석결과

#### 3.1 연구 분석의 방법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공간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GIS 분석방법을 활용한다. GIS 공간 분석기법이란 공간상에 나타나는 도시시설의 지리적 여건과 속성을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도시공간상의 거리나 시간을 이용하여 근린분석, 중첩분석, 최적경로분석 등을 도출함으로써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일련의 분석방법을 말한다[14]. 공간 접근성 분석을 위하여 어떠한 장애물이나 저항값이 고려되지 않는 두 지점사이의 거리를 분석하는 유클리디안 직선거리 분석(Euclidean Distance analysis)을 시행한다. 유클리디안 직선거리 분석은 평면화시킨 공간에 좌표계로 표시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리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이다[15].

$$d(p, q) = \sqrt{(p_1 - q_1)^2 + (p_2 - q_2)^2 + \dots + (p_n - q_n)^2}$$

$$= \sqrt{\sum_{i=1}^n (p_i - q_i)^2} \quad (1)$$

2020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화기반시설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모두 합쳐 34개가 있다. 이 중에서 민간기관을 제외하고 공공기관 이면서 문화예술회관, 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인 경우만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기준으로 하였을 때 총 9개의 문화예술회관 및 공연장이 분석대상으로 선택되었다. 이 중 제주시에 위치한 '예술극장'은 현재 상시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어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민간기관인 '한라아트홀'인 경우에는 접근이 용이하며 다양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어 분석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총 9개의 공연장은 제주시에 7개, 서귀포시에 2개가 위치하고 있다. 분석에 사용된 9개의 공연장은 다음 <표 2>와 같다.

선정된 9개의 공연장의 위치를 GIS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지도에 표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공연장 접근 취약지역을 살펴본다. 이후 이 권역에 제주특별자치도 입지방향에 적합한 공연장 건립 가능 지역을 선정하여 제안한다.

Table 2. List of Concert Hall

name of concert hall	location	facility classification	seat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gency	Jeju-si Donggwang-ro	public	828
Jeju Beach Performance Hall	Jeju-si Jungang-ro	public	1,188
Jeju National University Ara Muse Hall	Jeju-si Jejudaehak-ro	public	448
Seolmundae Women's Culture Center	Jeju-si Seonduk-ro	public	405
Jeju Arts Center	Jeju-si Onam-ro	public	1,184
Cheju Halla University Halla Art Hall	Jeju-si Halladaehak-ro	private	831
Kim Jung Culture Center	Seogwipo-si Kimjungmunhwa-ro	public	383
Seogwipo Arts Center	Seogwipo-si Taepyeong-ro	public	802

#### 3.2 연구 분석 결과

분석범위를 버퍼(buffer)형태로 지정하여 활용하였으며 버퍼는 도로 대비 영향권(서비스제공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이는 다수의 거주지 위치와 공연장 위치를 직선 거리를 활용하여 분석하기 위함이다[16]. 공연장 접근성을 유클리디안 직선거리로 5km, 10km로 하여 공연장의 입지와 버퍼를 구성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거리를 5km로 하였을 때의 공연장 입지는 <그림 1>, 거리를 10km로 하였을 때의 입지는 <그림 2>와 같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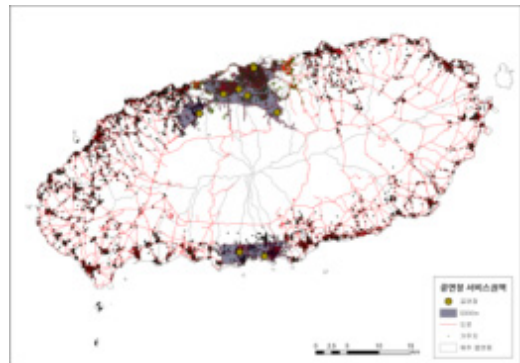


Fig. 1. 5km distance concert hall location and buff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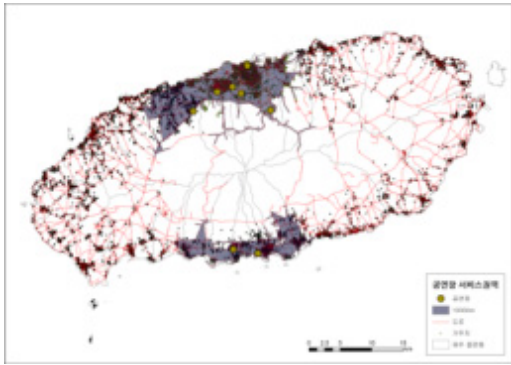


Fig. 2. 10km distance concert hall location and buffer

위의 분석 결과 공연장은 제주시 동권역과 서귀포시 동권역에 밀집되어 있어, 공연장 접근성 우위지역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제주시, 서귀포시의 동부·서부권역은 접근성 취약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그림 3)과 같다.



Fig. 3. Vulnerable and superior areas of accessibility

### 3.3 입지선정방향

이론연구와 선행연구,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입지선정의 조건들은 설정하였다.

첫째, 법령기준으로 거주밀집지역은 제외한다. 둘째, 공연장 접근성 취약지역을 우선한다. 셋째, 공연장 접근성 취약지역 내 접근성 양호지점을 선정한다. 넷째, 제주시 동권역과 서귀포시 동권역과의 원거리 지점을 선정한다. 다섯째, 자연경관 친화적 지점을 선정한다. 여섯째, 대중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지점을 선정한다.

위의 입지선정 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제주도의 공연장 접근성 취약지역인 제주시 동부권역, 제주시 서부권역, 서귀포시 동부권역, 서귀포시 서부권역 각 한 장소를 선정하여 총 4곳의 입지 가능성 지역을 제안하고자 한다.

#### 3.3.1 제주시 동부권역 - 성산일출봉

제주시 동부권역에는 성산일출봉 주변 지역을 입지 가능지역으로 제안한다. 이 지역은 성산일출봉, 섭지코지 등의 자연관광지가 있어서 대중교통접근성이 양호하며, 자연경관 친화적 공연장의 건립이 가능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Fig. 4. Google satellite photo and surrounding photos - Seongsan Ilchulbong Peak

#### 3.3.2 제주시 서부권역 - 새별오름

제주시 서부권역의 새별오름은 '들불축제'로 유명하다. 새별오름에는 축제를 위해 마련된 넓은 주차장이 있으며, 주변에 사용하지 않는 부지가 있어 공연장 건립에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축제 기간 이외에는 넓은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공연장을 이 부근에 건립하였을 경우 주차장 사용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또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오름 중 하나로 관광과 공연을 연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Fig. 5. Google satellite photo and surrounding photos - Saebyeoloreum

#### 3.3.2 서귀포시 동부권역 - 표선해수욕장

서귀포시 동부권역에는 바다가 보이는 표선해수욕장 주변의 지역을 제안한다. 표선해수욕장 주변에는 해안도로와 제주올레길3코스가 있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

이다. 대중교통접근성도 양호하여 공연장 건립이 가능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Fig. 6. Google satellite photo and surrounding photos - Pyoseon Beach

### 3.3.2 서귀포시 서부권역 - 송악산

서귀포시 서부권역의 공연장 입지 가능 지역으로 송악산 주변 지역을 제안한다. 주변에는 ‘마라도가는여객선’이 있으며 사계해안도로, 형제섬, 알뜨르비행장, 첫알오름 등의 관광지가 주변에 있어 공연장을 건립한다면 관광과 공연의 결합이 가능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넓은 주차장이 있으며, 바다와 산의 조화로운 자연경관까지 갖추고 있어 자연친화적 공연장 건립이 가능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Fig. 7. Google satellite photo and surrounding photos - Songaksan

## 4. 결론 및 정책제언

문화시설의 접근성은 지역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문화경쟁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까지 높일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

지역의 공연장 현황과 위치를 분석한 결과 제주시 동지역, 서귀포시 동지역에 공연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문화시설 접근 취약지역에 공연장 입지 선정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징을 고려한 입지선정 방향을 제시하고 성산일출봉, 새별오름, 표선해수욕장, 송악산 지역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지역 공연장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입지선정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제주지역 주민들에게는 공간 형평성 제약 해결을 통한 문화향수의 기회 확대, 제주지역 관광분야에는 자연과 더불어 문화예술, 야간 관광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제주지역을 ‘문화의 섬’으로 만드는 문화마케팅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 References

- [1] K. K. Park, Culture and National Ability, p. 701, Dymbook, 2019. pp.197-199.
- [2] H. S. Lim, City culture environment-cultural measure, p. 173,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1996. pp.11.
- [3] Jeju Cultural Indicators Survey, Jeju Research Institut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Korea, pp.95-96
- [4] H. B. Kim, S. G. Kim, “A Site Selection of Public Facility Based on An Accessibility Theory & GIS Spatial Analysis Technolog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D. Vol. 26, No. 3D, pp.385-391, 2006.
- [5] S. M. Choi, J. H. Jeon, M. S. Chung, “The Effectiveness of Cultural Welfare Program from a Social Inclusion Perspective among Low Income People in South Korea -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Cultural Accessibility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Seoul Studies, Vol. 16, No. 4, pp.177-194, 2015.
- [6] T. S. Hyun, “Study on the Concept of Cultural Welfare and Cultural Welfare Policy”, Social Welfare Policy, Vol. 27, pp.101-122, 2006.
- [7] J. H. Kim, “A Study on Spatial Equity of Cultural Facilities’s Distribution in Seoul”, Journal of Geography Education, Vol. 15, pp.43-59, 2007.
- [8] T. I. Kim, “Basic Study on General Location of Culture and Art facilities and a Desirable Plan for Arrangement of New ones in Jeju”, Jeju Research, Vol. 32, pp.69-86, 2009.
- [9] J. H. Park, C. H. Kim, “A Study on the Locational Elements of Public Cultural Facilities - Focused on the case of Urban-Rural Complex Cities”,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Vol. 22, No. 2, pp.211-223, 2009.



- [10] T. S. Park, M. Y. Lee, "Accessibility Measure of Cultural Facilities Using Urban Network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Vol. 35, No. 2, pp. 455-464, 2015.  
DOI : <https://doi.org/10.12652/Ksce.2015.35.2.0455>
- [11] S. M. Choi, S. H. Chae, "The Effect of Cultural Accessibility on Depression among Low income Elderly in South Korea : Focusing on The Mediation Role of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69, pp.417-447, 2015.  
DOI : <https://doi.org/10.21194/kjgsw..69.201509.417>
- [12] H. J. Kim, J. G. Lee, K. H. Yeo, "Regional Disparities and Determinants of Spatial Accessibility of Public Libraries in Seoul", Seoul Studies, Vol. 16, No. 4, pp.109-127, 2015.
- [13] S. J. Lim, C. H. Kim, "Analysis of Selecting an Appropriate Location for Infrastructure Considering the Range of Service Area and Accessibility: Focusing o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Vol. 32, No. 3, pp.45-66, 2020.
- [14] H. B. Kim, S. G. Kim, "A site Selection of Public Facility Based on An Accessibililty Theory & GIS Spatial Analysis Technologies", Journal of the Korean of Civil Engineers D, Vol. 26, No. 3D, pp.385-391, 2006
- [15] S. H. Kim, T. G. Kim, S. K. Suh, "Assessment of Accessibility to Medical Facilities in Rural Areas using Real Road Distance focusing on Pyeongchang-gun", Vol. 57, No. 4, pp.39-49, 2015.  
DOI : <https://doi.org/10.5389/ksae.2015.57.4.039>
- [16] Y. S. Nam, "Evaluation of locational accessibility to leisure facilities using GIS: Focusing on Jeju city Dong area", Korean Journal of Leisure, Recreation & Park, Vol. 43, No. 3, pp. 69-80, 2019.  
DOI : <http://dx.doi.org/10.26446/kilrp.2019.9.43.3.69>

고 혜 영(Hye-Young Ko)

[정회원]



- 2020년 8월 :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 2020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2020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관심분야>

문화행정, 도시행정, 문화도시

고 태 호(Tae-Ho Ko)

[정회원]



- 2002년 2월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도시개발경영학 석사)
- 2007년 2월 : 고려대학교(경제학 박사)
- 2008년 2월 ~ 현재 :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 2015년 2월 ~ 현재 :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센터장
- 2017년 2월 ~ 현재 :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사

<관심분야>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관광경제, 환경경제

황 경 수(Kyung-Soo Hwang)

[종신회원]



- 1993년 2월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도시 및 지역계획 석사)
- 1997년 2월 : 서울시립대학교(교통공학 박사)
- 2004년 8월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2016년 11월 :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부소장
- 2020년 3월 :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관심분야>

교통행정, 도시행정, 문화행정, 협상론